

3. 폐 과오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1례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Pulmonary Hamartoma

- A case report -

순천향 대학병원 해부병리과

김 숙, 박정자, 진소영, 이동화

과오종은 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방사선학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에 동전모양으로 보이는 단독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간혹 암종이나 결핵 등의 다른 결절성 질환과 감별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폐의 세침흡인 세포 검사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치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과오종이 폐의 변연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근이 비교적 쉽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46세의 평소 건강했던 여자로서 검진센터에서 우연히 폐의 단독성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던중 3개월 후 추적 검사 결과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내원 하였다. 흉부 X선 사진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상 우측 상엽에 약 2×2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하고 등근 결절이 관찰되어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였다.

세포 도말 배경은 혈성이었고 흡인되어 나온 세포들은 간엽조직과 상피세포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간엽조직은 점액성 기질을 보이는 연골 조직과 지방 조직 및 방추형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피 세포들은 대부분 핵이 둥글고 핵막이 평활하며 균일한 핵질을 보였다. 폐 과오종 진단 하에 우측 상엽 후절부 췌기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육안적으로 종괴는 흉막에 가까운 폐 실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위와 경계가 명확한 충실성의 황백색 결절로서, 조직학적으로 종괴의 대부분은 성숙한 연골 조직이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지방조직, 평활근 조직 및 호흡상피로 구성된 전형적인 폐 과오종이었다.

4. 침 생검으로 진단된 전이된 활막육종의 1례 보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강길현, 강동욱, 서광선, 강대영

활막육종은 주로 하지나 서혜부 또는 상지의 연부조직에서 생기는 드문 악성종양으로 진단당시 흔히 폐와 흉막에 광범위한 전이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침생검으로 다른 방추세포 육종과의 감별진단은 매우 어렵다. 본원에서 하지의 활막육종이 폐로 전이를 보인 예에 대한 침 생검을 시행한 1례를 경험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34세 남자로 3년전부터 축지된 오른쪽 경골 전외측부에 엄지손가락만한 크이의 종물

이 동통을 수반하며 점점 크기가 증가하여 본원에 내원 하였다. 조직생검을 통해 하지에 생긴 활막육종으로 진단받고, 외과적 적출술을 시행 받았다.

절제된 종괴는 10×6×5cm 크기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변조직으로 침윤성 증식을 보였다. 절단면은 출혈과 피사가 다소 관찰 되었지만 균질하였다. 조직학적으로, 난원형의 상피세포 성분과, 방추형의 간엽세포 성분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중상을 보이는 활막육종이었다.

내원당시, 오른쪽 폐하엽에도 전이소견을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어 침 생검을 실시하였다. 침 생검 소견상, 세포밀도는 비교적 치밀 하였으며, 중등도크기의 난원형 및 방추형 모양의 다양한 크기의 종양세포들이 균을 이루거나 산재되어 있었다. 구성하는 세포의 핵은 대부분 진한 염색성을 보였고, 세포질은 불분명하였다. 하지에서 전이된 활막육종으로 진단 하였고, 하지종양 적출 후 두차례 화학요법을 받고 우측하엽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우측하엽에서 생긴 종괴는 5cm의 장경을 갖는 경계가 분명한 원형으로서 단면은 연회색으로 균일 하였고 조직학적으로 하지에 생긴 종괴와 동일하였다.

5. 기관지 세척용액을 이용하여 진단한 폐의 Langerhans 세포 조직구증

- 1례 보고 -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of the Lung Confirmed by Ultrastructural Study Using the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A case report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내과학교실* 및 방사선과학교실**

조미연, 정순희, 신계철*, 성기준**

폐의 Langerhans 세포 조직구증은 전신질환의 일환이나 폐에 원발성 (Farinacci 등, 1951년)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초기에는 폐실질에 미만성의 망상 및 소결절형 병변이나 독립성 병변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회복되지만 환자의 일부는 진행하여 간질내 섬유화와 늑막하 낭포를 동반한 다발성 낭형성으로 별집모양폐를 보이게 된다. 조직검사를 통해 호산구 및 조직구의 침윤과 전자현미경상 Birbeck granule을 관찰하는 것이 확진에 가장 중요하므로 병리학적 검색을 위한 검체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기관지 세척법은 비관혈적 방법으로써 감염성 폐질환, 폐출혈, 폐포내 단백증과 간질내 침습성 질환을 진단하는데 보조적으로 이용되며, 폐실질 내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자들은 기관지 세척용액에서 얻은 세포로 전자현미경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한 21세 남자의 폐에 발생한 Langerhans 세포 조직구증 1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과거력상 1년전 폐결핵 의진하에 1년간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으며, 내원 당일 기흉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방사선 소견상 양측 상엽과 중엽에 미만성으로 다발성의 소낭과 망상 및 소결절형 음영, 불규칙한 변연을 가진 늑막하 낭포의 소견이 있었고, 폐기능 검사상 경한 폐쇄